

‘현대의 신화’와 ‘회색인’의 사유 - 최인훈의 단편소설 「라울전」을 중심으로

김 춘 규*

요약

본고는 최인훈의 1960년대 산문과 초기 단편소설 「라울전」(『자유문학』, 1959.12)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문학 활동 초기부터 인류의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음을 밝힌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최인훈의 개인사와 민족적 비극을 원인으로 들고 있고, 최인훈의 문학적 주제가 개인/민족에서 점차 세계 문명으로 심화/확대되어간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본고는 최인훈의 초기 사유와 문학 속에서 문명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가 반복적으로 주제화하고 있는 지성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당대 서구의 보편적 사유와 공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인훈은 근대 문명이 자연 전체를 지배함으로써 이전까지 자연이 누리고 있던 지위를 문명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문명은 인간과 대립되는 ‘제2의 자연’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문명으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이 근본적으로 인간 이성에 대한 맹목적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인간 이성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소설을 통해 모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울전」은 허구적 인물인 라울을 통해 지성이 타자가 되는 순간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인간 문명과 이성 중심의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최인훈, 제2의 자연, 현대의 신화, 회색인, 「라울전」, 문명 비판, 이성중심주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목차

1. 문명과 개인의 거리
2. 자연이 된 문명과 '회색인'
3. 타자가 된 지성 - 「라울전」
4. 결론

1. 문명과 개인의 거리

우리는 흔히 '한국과 세계'라고 한다. 이 말은 잘 뜯어보면 보기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과'로 이어놓았으니 그 양쪽에 있는 '한국'과 '세계'는 마치 '돌과 나무' 할 때의 '돌'과 '나무'처럼 갈라놓을 수 있는 무엇처럼 알기 쉽다.

그런데 '세계' 안에는 '한국'이 벌써 들어 있으므로, 그런 '세계'에 '과'라는 말로 붙여놓은 '한국'은 '세계' 밖이나 있는 '한국'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한국'은 정말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한국과 세계'라는 말은 정말은 쓸 수 없는, 뜻 없는, 또는 틀린 말이다.¹⁾

위의 인용문은 최인훈의 짧은 산문인 「와와 '과」의 일부분이다. 그는 '한국'이라는 개념이 이미 '세계'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와'나 '과'로 연결될 수 있는 "서로 이웃한 촌수"²⁾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얼핏 보면 일상 언어에 대한 사소한 꼬투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최인훈의 문학과 사상을 더듬어보면 중요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와와 '과」는 일상 속에서 무의식중에 망각해버리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최인훈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

1) 최인훈, 「와와 '과」, 『유토피아의 꿈-최인훈 전집11』, 문학과지성사, 1994, 233-234면.

2) 위의 글, 233면.

는 것이다.

‘유(類)-종(種)-개체’라 단순화할 수 있는 이러한 포함관계가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유는 유(類)와 비교해서 종(種)이 갖는 개별성, 혹은 유종(類種)과 비교해서 개체가 갖는 개별성으로 인해 이 개념들이 포함관계라는 논리적 결론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다.

‘인류’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개인은 손쉽게 ‘인류’와 ‘개인’을 동일시할 수 있고, 반대로 ‘인류’와 ‘개인’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즉 서로에 대한 타자로 인식할 수 있다. 전자는 전체성을 특성으로 하는 ‘광장’의 인식이고, 후자는 개별성을 특성으로 하는 ‘밀실’의 인식이다. 장편소설 『광장』에서 최인훈은 밀실이 보장된 광장, 혹은 광장이 보장된 밀실로, 상호배타적인 두 개념의 변증법적 지양(止揚)을 상상한다.

개체와 전체의 관계에 대한 최인훈의 문제의식은 그의 작품 활동 초기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최인훈의 문학 세계를 해명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동인(動因)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체와 개체가 같이 포함관계에 있는 두 개념의 사이의 긴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되었고 그 긴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탐구되어왔다.

예컨대, 김현은 「헤겔주의자의 고백」(『이헌구선생송수기념논총』, 1970)에서 최인훈 문학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세계의 긴장 관계의 근본적 원인으로 최인훈의 개인사와 관련된 ‘소외감’을 지목한다. 즉,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과 그로 인한 분단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찾지 못 하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작가의 개인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³⁾ 이와 유사하게, 우찬제는 『화두』를 분석하며 최인훈의 중학교 시절 ‘자아비판회 기억’과 고등학교 시절 ‘작문시간에 대한 기억’을 ‘원초적 기억’으로 위치시키고, 그로부터 ‘남한과 북한’, ‘미국과 러시아’의 문제로의

3) 김현, 「헤겔주의자의 고백」, 이태동 편, 『최인훈-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19』, 서강대학교출판부, 1999, 85면 참조.

식지평을 심화확대하고 있다고 말한다.⁴⁾

이처럼 ‘포함관계에 있는 두 개념과 서로 대립되는 두 개념 사이의 긴장’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대체로 그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그의 원 체험이라 할 수 있는 ‘소년시절의 기억’, ‘LST 체험’과 같은 작가의 개인적 체험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지목하고 있으며,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0년에 발표된 이선영의 박사학위논문은 최인훈 문학의 ‘아이러니’를 주제로 다루며 최인훈의 원 체험이라 할 수 있는 ‘학교, 방공호, LST의 공간’이 근대의 양가성을 드러내고, 이러한 양가성을 문학적으로 포착하면서 새로운 주체성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 최인훈의 문학이라 말한다.⁵⁾ 이에 앞서 2016년에 발표된 최은혁의 연구에서도 최인훈의 소년시절 체험인 ‘자아비판회 사건’을 최인훈의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편집증적 면모”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⁶⁾

물론 이러한 경향들이 연구의 오류라거나, 최인훈에 대한 오해를 빚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인훈의 중고등학교 시절 체험이 작품들의 강력한 모티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부분은 그의 소설과 산문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체험이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이념 대립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체험과 민족적 비극을 강조함으로써 서구 사회(문명)에 대한 최인훈의 콤플렉스를 은연중에 강조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최인훈 문학의 내적 모순에 주목하며 서구문명에 대한 최인훈의 콤플

4) 우찬제, 「현실의 유형인 인식의 세계인, 그 가역반응」(『상처와 상징』, 민음사, 1994), 이태동 편, 『최인훈-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19』, 서강대학교출판부, 1999, 252-255면.

5) 이선영, 「최인훈 문학의 아이러니와 현대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1면.

6) 최은혁,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의식의 양가성과 그 표출 양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80면.

렉스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연구로 정영훈의 연구는 주목을 요한다.⁷⁾ 이 연구는 다양하고 난해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인식적 배경을 규명함으로써 최인훈의 작품 세계 전반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명하고 있다. 정영훈은 최인훈 소설의 고유성의 계기로 “재현/표상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재현/표상에 대한 의지 및 욕망이 빚어내는 긴장”⁸⁾을 들고 있다. 여기서 ‘재현/표상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이념과 풍속의 괴리’처럼, 독서를 통한 세계에 대한 인식과 실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구도를 서구와 한국의 관계에 대입할 경우, 한국의 현실은 서구를 원본으로 한 복제품에 불과하며, 그조차도 서구의 역사와 실제적 삶이 생략된 채 그 표면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이다. 즉, 과거 없는 현실, 실제적 근거가 없는 이념이 한국 현실의 특수성이며 이를 넘어서 새로운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최인훈의 글쓰기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시대상을 갖는 부호인 서양의 말과는 달리 우리말은 지시대상이 없이 존재하는 비어 있는 기호”⁹⁾이며, 최인훈은 자기 작품 간의 상호텍스트적인 방식을 통해 기호의 의미를 채워 넣는다는 정영훈의 해석은 서구 문명에 대한 작가의 민족적 열등감과 그에 대한 반응을 창작 활동의 내밀한 동기로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민족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 그리고 식민지를 막 벗어나 뒤늦게 ‘근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제3세계 국가들이 경험한 서구 사회에 대한 공통된 콤플렉스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비단 최인훈뿐만 아니라 당대를 살아가며 서구 문명의 거대한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던 이들 모두의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7) 정영훈,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주체성과 글쓰기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8) 위의 글, 11면.

9) 위의 글, 153면.

나 이러한 상황 조건들을 잠시 걷어내고 관점을 달리하면, 이성 중심적 사고방식과 그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대안 모색을 위한 세계 사상의 흐름과 최인문의 문학이 공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겹쳐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여파로 인한 분단은 세계의 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한반도는 전쟁 후에도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후'에 대해 가장 절실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국주의(식민지), 사회주의(북한), 자본주의(남한)를 모두 경험한 최인훈은 세계사라는 거대한 흐름에 주체성 없이 휩쓸리는 개인과 민족의 '비극적 운명'을 절감한다. 그러나 최인훈이 감지한 '운명'이란 어떤 초월적인 힘이 아닌 그가 속해있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문학에서 인간이 감각하고 인지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초월적 운명과 대결하고 그것을 극복하려 한 작가로 김동인, 김동리, 장용학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인은 「배따라기」와 같은 작품 속에서 세계를 움켜쥐고 지배했던 진시황과 나폴레옹 등을 예로 들며 그들과 같은 삶을 추구하는 한편, 우연과 오해로 인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뱃사공'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동리는 「무녀도」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대립시키며 그 갈등 속에서 결국 비극으로 치닫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준다. 장용학은 기독교의 세계관을 차용하며 모든 이 분법적 구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을 넘어설 원형을 추구한다.

이들 세 작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명'을 해석하고 있으나 그 공통점은 인간이 아닌 것과의 대립 상황 그리고 인간을 초월함으로써, 장용학 식으로 말해, '비인(非人)'의 경지에 이룸으로써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소설 속에서 운명에 대한 주인공의 승리와 좌절은 주인공 개인의 성패(成敗)가 아니라 거대한 힘에 대한 인간 운명의 성패를 의미한다.

반면에 최인훈이 문제 삼는 것은 시종일관 개체로서의 인간과 전체로서의 인류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운명, 팔자, 신과 같은 본래부터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랜 기간 퇴적되어 개인에게 신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류의 문명이다. 비대해진 문명은 개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것이며 이전까지 인간을 지배해왔던 자연조차 압도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 개인과 사회, 인간과 인류의 동일성은 의심받게 된다. 즉, 인류 문명의 수준과 개인의 수준 사이의 격차가 재인식됨으로써 자아와 세계의 대립은 자아와 ‘인류 문명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대립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최인훈의 초기 소설에 대한 연구의 관점을 새롭게 조정하고자 한다. 첫째, 최인훈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내적 모순들이 그의 월남 전 경험과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을 근원으로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동시에 최인훈의 관념 세계 내에서는 개인과 민족을 초월한 인간 이성의 역사와 그 한계에 대한 의식이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둘째로 최인훈의 작품 세계가 개인-민족 세계의 순서로 점차 심화/확대되었다는 기존의 관점을 재조정하며 그의 초기 작품에 인류 역사에 대한 사유가 전제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비록 소설의 배경과 인물이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사유와 문제의식은 한 반도의 혼란스러운 당대 상황과 민족적 특수를 넘어서는 보편을 전제하고 있음을 특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주로 1960년대에 발표된 최인훈의 초기 산문들을 중심으로 인류의 문명과 개인의 ‘거리’에 대한 최인훈의 인식을 분석하겠다. 3장에서는 최인훈의 초기 단편 소설 중 하나인 「라울진」(『자유문학』, 1959.12)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인간 이성에 대한 최인훈의 비판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2. 자연이 된 문명 속의 ‘회색인’

최인훈은 여러 산문을 통해 인간 개인의 삶과 인류 문명 전체의 크기를 비교한다. 그러한 비교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이중적 존재로 나타나는 데, 하나는 달에 로켓을 쏘아 올릴 정도로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추고 우주의 원리를 파악한 존재로, 다른 하나는 개인으로서 “한결같은 작은 삶밖에는 살지 못”¹⁰⁾하는 존재다. 이들 사이의 거리는 모순을 낳고, 이 모순은 최인훈이 평생에 걸쳐 탐구한 화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모순을 자각하는 계기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은 작가의 개인사와 그가 속한 민족사를 중심으로 연구해왔다. 그러나 본고는 최인훈의 문제의식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펼쳐진 인류 역사에 대한 반성의 사유와 공명하는 지점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서구의 대표적 사상가 중 하나인 테오도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1903~1969)의 근대 인식을 통해 최인훈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겠다.

최인훈의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아도르노를 끌어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아도르노가 파악한 전후 시대와 인류 문명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개인과 인류 문명에 대한 최인훈의 사유와 공명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는 전후 시대의 대표적 서구 철학자로, 당대의 지배적 사유를 담아낼 수 있는 훌륭한 전범(example)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도르노의 철학과 최인훈의 문제의식이 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도르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사유를 펼쳐나갔으며, 인간의 이성 중심적 사유와 ‘개념’의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이성과 개념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최인훈은 인간 이성(지성)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10) 최인훈, 「인류의 키와 개인의 키」, 『유토피아의 꿈-최인훈 전집11』, 문학과지성사, 2010, 245면.

‘환상’을 내세우며 일종의 상상적 비약을 제시한다. 또한 아도르노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억압을 문제 삼고 있는 반면, 최인훈은 개별 인간과 보편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다.

서구적 사유의 전범으로서 아도르노의 인식과 최인훈의 인식이 공명하는 지점은 근대의 인간화된 자연, 그리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주어진 환경이 자연이 아니라 인간 문명이라는 인식이다. 인간과 인류 문명의 관계에 대한 최인훈의 인식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인류 문명의 수준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인식적 착각’이다. 하늘의 별을 통해 개인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다는 범결정론적 사고방식이 우주와 인간을 동일시하던 신화시대의 인식이었던 것처럼, 근대의 개인은 책이나 신문을 통해 경험하지 않은 정보를 쌓음으로써 세계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자신이 몸담고 있다고 인식한다. 특히 한국의 근대는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거대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개인적/민족적 주체를 세계와 비교적 쉽게 동일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딛었다’는 사실과 ‘달에는 토끼가 산다’는 신화는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진술 모두 개인이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여러 방법을 통해 ‘전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인간이 달에 살고 있는 토끼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듯이, 특권을 가진 소수의 인간들을 제외하면 오늘날의 일반인도 역시 인류가 달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지는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달에 발을 디뎠다는 진술을 의심하지 않으며 이제는 특별한 감동이나 놀라움도 없이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달 착륙을 ‘풍문’으로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것은 실체가 없는 관념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그 관념은 자연스럽게 물신화된다. 이와 같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과거에 신에 대한 의심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 합리성, 개념으로 이미 검증되고 포착되었다는 ‘사실’이

라는 이유로 신성시된다.¹¹⁾ 아도르노는 이러한 현대의 인식을 ‘현대의 신화’ 또는 ‘제2의 자연’이라 부른다. 『계몽의 변증법』의 주요한 명제인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 그리고 계몽은 신화로 돌아간다.”¹²⁾에서 후자는 현대문명이 원시 시대의 자연만큼이나 인간에게 친숙해져(동시에 낯설어져) 새롭게 개념화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임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제2의 자연’, ‘현대의 신화’라는 표현은 『계몽의 변증법』 집필에 착수하기 전에 작성된 아도르노의 초기 강연문 *Die Idee der Naturgeschichte* (1932)¹³⁾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도르노는 이 글에서 ‘제2의 자연(zweite Natur)’이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과 벤야민의 『독일 비애극의 원천』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¹⁴⁾ 이 개념은 특히 루카치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루카치는 제2의 자연이 “영혼이 인간화될 때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는 활동의 무대”, “영혼의 가장 깊숙한 내면만이 그 전권에서 벗어나 있는 세계이자 조망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도처에 현존하는 세계”이며 일종의 ‘관습의 세계’를 일컫는 개념이라 소개한다.¹⁵⁾

아도르노는 이처럼 인간으로 인해 만들어진 역사가 근원의 망각으로 인해 굳어져 그 자체로 신화와 같이 낯설고도 친숙하게 받아들여진다는

11) 테오도어 아도르노,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2001, 59면.

12) 위의 책, 18면.

13) Theodor Adorno, *Die Idee der Naturgeschichte*, In *Philosophische Frühschriften. Gesammelte Schriften 1*,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73. 이 글은 현재까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독일어 원문과 함께 Bob Hullot-Kentor가 번역한 *THE IDEA OF NATURAL HISTORY*(Telos: Critical Theory of the Contemporary 60, pp.111-124)를 참조하였으며, 더불어 독일어 원문을 번역/요약한 네이버 블로그의 글(<https://blog.naver.com/wndyd75/221857387052>)을 번역자 동의하에 일부 참조하였다.

14) “wenn ich die Quellen angebe, in denen dieser Begriff von Naturgeschichte entspringt. Ich berufe mich auf die Arbeiten von Georg Lukacs und Walter Benjamin.” (Theodor Adorno, *Die Idee der Naturgeschichte*, In *Philosophische Frühschriften. Gesammelte Schriften 1*,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73.)

15) 게오르그 루카치,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70-71면.

전제 하에, 자연과 역사가 뒤섞여 있으며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고, 계몽은 신화로 되돌아간다’는 명제를 『계몽의 변증법』에서 보다 심화시킨다.

한편, 최인훈은 이러한 인식을 한국 근대에 대한 사유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

유럽의 근대정신은 관념의 실체화에 저항하고 관념에다 항상 실증된 풍속의 추를 달아놓음으로써, 관념이 인간의 대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고, 관념이 인간의 행동의 정확한 계수량일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유럽의 근대적 인식이 대단히 동적인 것이었다는 뜻이다. 동적이란 말은 어떤 관념이 즉자적으로 실체로서 인정되지 않고 그 관념 내부에 방법과 풍속이라는 두 개의 모순되는 극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¹⁶⁾ (밑줄은 인용자)

유럽적 관념의 힘의 원천인 귀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선배는 알지 못했다. 유럽의 근본적 관념 체계가 신문학의 상상력의 근원이었다고 보고 그 관념 체계가 이원적 변증법적 구조의 장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적용되었다는 것은 문학으로서는 더없이 불행한 일이었다.¹⁷⁾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최인훈은 유럽의 근대정신은 관념이 즉자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에 저항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반해 한국의 근대는 유럽의 관념 체계를 받아들이며 관념의 실체화를 막아주는 ‘풍속’이 부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얼핏 서구 유럽의 근대를 이상적인 상태로 놓고 그와 비교하여 한국의 근대는 기형적인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제원이 최인훈의 산문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최인훈이 유럽을 추종하거나 유럽의 방법에 종속된 것

16) 최인훈, 「신문학의 기초— 계몽토속참여」(『사상계』, 1968.12), 『문학과 이데올로기-최인훈 전집12』, 문학과지성사, 2009, 182면.

17) 위의 글, 183-184면.

이 아니”며 ‘풍속’이 아닌 ‘방법’에 방점을 두었을 때, 최인훈이 말하는 “방법”의 보편성은 ‘유럽사회’와 ‘비유럽사회’에 소속된 ‘인간’ 모두의 동질성을 드러낸다”¹⁸⁾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신제원의 연구가 최인훈의 산문들에서 풍속이 부재하는 관념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실의 모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본고에서 방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기원(起源)을 잃어버린 문명, 그리하여 신화처럼 인간의 삶과 친숙하면서 동시에 낯선 감각이다. 위의 인용문이 실린 글에서 최인훈은 다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삶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관계 지어지지 못한 언어는 다시 무중력의 공간으로 달아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언어들은 삶의 땅 위 하늘에 풍선처럼 떠돈다. 그 풍선은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에 얽히고 그들의 희망에 의해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떨어져버린, 무연한, 그곳까지 올라간 사연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¹⁹⁾ (밑줄은 인용자)

최인훈에게 있어서 언어란 단순히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문명의 축소판이자 인간의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그것이다. ‘사연을 알 수 없는’ 언어, 소통자 사이의 관계와 맥락이 단절된 언어는 한낱 관습적 도구로 전락한다. 문명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개별 인간에 의해 향유되고 있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실체임이 틀림없다. 즉, 문명은 인간이라는 종(種)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그 종이 문명의 주체임이 명백하면서 한편으로 개별 인간 누구에게도 기원을 두지 않고 개별 인간 누구도 문명에 대한 주체라 말할

18) 신제원, 「최인훈의 에세이에 나타난 문명론과 문학예술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42면.

19) 최인훈, 「신문학의 기초·계몽·토속·참여」, 앞의 글, 190면.

수 없는 것이다. 개별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문명은 이미 주어져 있다. 루카치나 아도르노의 식으로 말하자면 이는 ‘제2의 자연’으로, 문명은 ‘이미’ 존재했으며 따라서 ‘원래’ 그러한 모습처럼 인간에게 인식된다.

한편, 신화와 서사시의 주인공들은 ‘제1의 자연’에 맞서 새로운 인간 운명의 개척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을 다룬다. 성패와 관계없이 그들은 자연의 거대함에 맞섰다는 것만으로 영웅, 신, 거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대소설의 주인공들도 영웅, 신, 거인과 같은 형상으로 등장한다.

사람은 과학이라는, 자연인의 감각적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관념적 허구를 통해서 자연인이라는 생물적 주체에서 과학자라는 주체로 자기를 조립할 때 비로소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라는 거시적 리듬을 자기화한다. 이 과정을 사회소설에 적용해보자. 그러면, 사회소설은 상황적 전형이라는 관념적 허구를 통해 사회적 리듬을 옮기는 소설이다, 하는 정식을 얻게 된다. 사회소설의 주인공은 자연인 사이즈를 이기고 넘어선 주체이며, 집단의 거시적 장기적 운동 리듬을 의인적으로 표현한 관념적 거인이다. 이 점에서—집단의 표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소설은 신화라고 보는 것이 옳고, 그 주인공은 신이며 영웅이며 거인이다.²⁰⁾

최인훈은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빗대고, 그 흐름을 의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과학자와 문외한에 빗댄다. 그리고 거시적 사회의 리듬을 옮기는 소설을 ‘사회소설’, 주인공을 ‘관념적 거인’, ‘신’, ‘영웅’, ‘거인’이라 칭한다. 이렇게 사회소설은 현대의 신화가 되고 주인공은 현대의 영웅이 된다. 새로운 영웅은 더 이상 자연과 대립하

20) 최인훈, 「천단강성론」, 『문학과 이데올로기 최인훈 전집 12』, 문학과지성사, 2009, 4면. 이 글은 1969년에 출간된 『천단강성전집 6』에 「신화의 음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1971년에 출간된 산문집 『문학을 찾아서』에 재수록되었다.

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 구조, 제도, 관습, 즉 인간 문명에 대항하는 ‘사회인’이라는 주체다. 이 반대편에는 제2의 자연인 문명에 대항하지 않고, 문명 속에 살면서 문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연인’이 있다. ‘자연인’이 신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화에는 등장하지 못 하는 개인들이라면, ‘사회인’은 신화의 주인공들이다. 사회소설의 주인공들은 ‘관념적 허구’를 통해서 인간 사회와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감지하고 그에 대해 능동적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최인훈 소설의 주인공들은 ‘사회인’과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인’이라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위상을 갖는다. 『광장』, 『구운몽』, 『회색인』, 『서유기』, 『태풍』 등의 소설들에서 주인공은 지식인이거나, 사회 역사적 흐름을 강렬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로 등장하지만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혁명, 저항과 같은 주체적 행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그들은 내적으로는 ‘사회인’이지만 외적으로는 ‘자연인’의 이중적 모습 갖추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자연인’, 혹은 ‘자연적 사회인’이라 명명할 수 있을 이러한 유형을 두고 최인훈은 ‘회색인’이라 칭하고 있다. ‘회색인’이란 실상 두 이데올로기 사이에, 참여와 비참여 사이에 놓인 중립적 인간이라기 보다 인간을 둘러싼 거대한 사회(제도, 문명, 이데올로기 등)를 인식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독특한 유형인 것이다.²¹⁾

신화가 되어버린 근대를 살아가는 두 유형의 인간(사회인과 자연인)을 비교할 때, 사회인은 인류 역사와 근대 문명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선다는 점에서 근대의 전형이자 신화적 영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성과, 지성을 토대로 한 실천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

21) 이러한 유형의 특성을 포착하고 있는 연구로 방민호의 「데카주망의 논리-최인훈 장편소설 『회색인』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인훈의 소설 『회색인』에서 언급된 ‘데카주망(dégagement)’이라는 용어를 두고 그것이 사르트르의 ‘앙가주망(engagement)’과 강하게 결부된 용어이며, ‘현실에서의 해방’, ‘깊은 이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앙가주망과는 다르지만 더 깊은 의미의 근본적인 참여를 가리킨다고 말한다.(방민호, 「데카주망의 논리-최인훈 장편소설 『회색인』, 『어문논총』 6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 이후 아도르노를 비롯한 서구의 지식인들이 극심한 허무주의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성(이성)에 대한 맹신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와 과시즘과 같은 전체주의적 위기를 전 세계로 확대시켰다.

최인훈의 학생시절 경험이 당대 세계 보편의 사유와 공명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자아비판회 사건’과 ‘LST 체험’은 최인훈이 이데올로기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게 만든 일종의 계기라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실천주의자와 혁명가들은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현실의 변혁을 꾀할 것이다. 그러나 최인훈은 이 체험을 통해 현실 변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지성에 대한 반성의 길로 나아간다. 이론을 즉각적으로 현실로 옮기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전체주의와 폭력을 낳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현실과 이론을 수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성에 대한 맹신을 반성하고 이성 자체를 내면화, 주체화할 수 있는, 이론과 현실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3. 타자가 된 지성 - 「라울전」 분석

2장에서는 아도르노가 제시한 ‘제2의 자연’, ‘현대의 신화’ 개념과 최인훈의 사유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현대에 대한 인식과 이성에 대한 반성의 관점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최인훈은 근대 문명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근원을 인식할 수 없는, ‘사연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낯설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최인훈은 현대적 신화의 영웅으로서 사회소설에 등장하는 ‘사회인’의 개념과 그에 반대되는 ‘자연인’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속 주인공은 주로 ‘사회인’도 ‘자연인’도 아닌 ‘회색인’이다. 이는 지성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사회인도, 현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연인도 아닌 현실을 극복할 새로운 인간 유형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양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가 지배적이던 세계 보편적 분위기 속에서 최인훈은 인간 지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타자가 된 이성에 주목한다.

이번 장에서는 최인훈의 초기 소설 「라울전」(『자유문학』, 1952.12)에서 인간 지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이성에 대한 반성이 포착되는 장면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라울전」은 1차 등단작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자유문학』, 1952.10)와 함께 그의 소설 활동을 알리는 등단 완료작이다. 이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신학적 관점에서, 지성을 통한 신의 은총을 바라고 있으나 실천력, 진정성의 부재로 실패를 하게 된다는 해석²²⁾, 이와 반대로 지성적 태도를 마지막까지 견지하지 못 하고 운명적 열등감으로 인해 지성을 포기하여 실패로 돌아갔다는 해석²³⁾이 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조경덕은 헤겔의 정반합 논리를 빌려와 라울과 사울을 각기 정과 반으로, 그리고 서사의 진행에 따라 정과 반을 지양(止揚)하는 합(合)의 논리를 드러낸다고 해석한다.²⁴⁾ 그에 따르면, 도덕적 인간이 운명적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대립이며, 헤겔적 변증법을 통해 자유와 결정론을 양립시킴으로써 “운명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²⁵⁾을 찾는다는 것이다.

22) 이동하, 「『목공요셉』과 「라울전」에 대하여」, 『한국소설과 기독교』, 국학자료원, 2003; 신익호, 「신학적 신정론의 관점에서 본 문학-〈라울전〉과 〈고양이는 부르지 않을 때 온다〉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국어문학회, 2012.

23) 이수형, 「신과 대면한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라울전」과 「아겔다마」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연구논총』,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24) 조경덕, 「운명과 자유-최인훈의 「라울전」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25) 위의 글, 387면.

한편, 보다 문학적인 관점은, 비록 신과 인간의 관계는 배제시키고 있으나, 지성과 실천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킨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유사하다. 전소영은 「라울전」을 최인훈 문학의 시발점으로서 높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라울과 바울의 경쟁 구도와 최인훈의 지양점과 지향점으로 해석하고 헛된 지성의 결과, 예컨대 제국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단절하고 혁명적 실천을 향해 나아가는 자각을 드러낸다고 보았다.²⁶⁾

이처럼 「라울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라울과 대립되는 인물인 바울을 ‘실천’의 상징으로 뚝으로써 지성의 단계에 머물기만 했던 라울보다 우월한 인간형이라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소설에 묘사된 바울이 진정으로 라울보다 우월했을까? 즉, 회심(回心) 이전의 바울이 라울과 비교하여 신의 선택을 받기에 더 적합한 인물이었을까? 비록 성경에서 바울은 높은 지성과 교양, 구약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진 것으로 묘사²⁷⁾되고 있으나, 소설 속의 바울은 “팔팔하고 조급”²⁸⁾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운과 출신 배경에 다소 의지하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²⁹⁾되고 있다.

라울에 비해 바울은 ‘지성’과 ‘성실’이라는 덕목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

26) 전소영, 「「라울전」, 최인훈 문학의 한 기원」,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학회, 2018.

27)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성경전서 세번역』, 사도행전: 22장 3절, 대한성서공회, 2004.)

28) 최인훈, 「라울전」, 『웃음소리-최인훈 전집 8』, 문학과지성사, 2009, 52면.

29)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달랐다. 그가 장군이 되지 않고 제사장이 된 것은, 다만 장군이란 로마인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그의 민족의 처지와, 집안이 제사장직을 하여왔다는 것뿐이었다. 집안일을 이었다는 것 말고 아무런 까닭이라곤 없었다.”(최인훈, 「라울전」, 『웃음소리-최인훈 전집 8』, 문학과지성사, 2009, 53면.), “...그러는데 다시 일어나 앉더니, 경전을 눈에 딱 감은 채 잡히는 대로 열어젖혔다. 그제야 라울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냈다. 그는 내기를 하자는 것이다. 죽자고 외는 대신, 넘겨짚기로 내일 시험을 맞자는 것이 분명했다.”(위의 글, 54면.)

하다. 그렇다면 ‘실천’은 어떠한가. 기존 연구들이 지목하는 라울의 결함은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이라는 것이다. 라울의 패배가 실천의 부재에 있다면, 자동적으로 바울의 승리는 ‘실천’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라울=지성/바울=실천’의 구도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점은 재고가 필요하다. 성경에서나 소설에서나 바울은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의 가장 대표적인 대적자로서 행동³⁰⁾했으며, 그의 회심은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써, “믿을 수밖에 없는 ‘신의 강제’³¹⁾를 대면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바울에 비해 라울에게 부족했던 것은 ‘신의 선택’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렇다면 「라울전」의 서사는 ‘지성’과 ‘실천’의 대립이 아닌 ‘인간’과 ‘신(에 의해 선택받은 인간=바울)’의 대립 구도라 할 수 있고 그 대결에서 패배한 인간의 비극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과 같은 전통적 신화의 서사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2장에서 다뤘듯이, 최인훈에게 있어서 이른바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란 신(운명)과 인간의 대립이 아닌 ‘인간 문명’과 ‘개별 인간’의 대립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³²⁾ 「라울전」의 독해를 위해 본고가 취하고 있는 관점 역시

30)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들 여자들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사도행전; 22장 45절)

31) 최인훈, 앞의 글, 57면.

32) 이에 대해, 연작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신가(神歌)놈’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인훈이 말하는 신(神)은 물론 기독교적 신도 아니거나 일반적으로 일컫는 ‘운명’이나 ‘팔자’도 아니다. 최인훈은 “어떤 상황이 그 이루어짐이나 무너짐이나 개인의 힘이나 한두 세대의 시간으로는 실현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을 개인에 대해서는 운명”이라 부르거나, 혹은 사물이 변화하는 여러 단계가 “공개되고 자각돼 있을수록 자유의 기분이 지배적이고 반대로 가운데 여러 단계가 감춰지고 자각되지 않을수록 변화는 운명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최인훈 전집 4』, 문학과지성사, 121-122면.)

‘신(바울)의 대적자 라울’이 아닌 ‘인간 라울’을 주목하는 것이다.

소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사울이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회심(回心)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가상의 인물인 라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라울은 어린 시절부터 사울과 함께 스승인 가말리엘로부터 신의 법을 배워왔으며, 후에 둘 모두 유대교의 율법 교사(랍비)가 되어 여호와의 가르침을 전파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예수가 나타나자 라울은 예수의 계보를 추적하여 그가 다윗왕의 계보를 잇고 있음을 확인한다. 반면에 사울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탄압하는 행보를 이어간다. 어린 시절부터 사울에게 ‘운명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던 라울은 사울이 예수를 부정하자 오히려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갖는다. 라울은 ‘배움과 앎’을 통해 자신이 사울보다 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예수에 관련한 일에도 자신이 사울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미처 예수를 직접 만나기 전에 예수는 처형당하고, 후에 총독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사울이 부활한 예수의 무리를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순간 라울은 또다시 사울에게 패배했음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이제껏 망설이고 있던 예수의 신성을 긍정하게 된다. 얼마 후 사울이 라울을 찾아와 그가 회심하던 날 경험한 예수의 기적을 알려준다. 그리고 사울은 라울이 벌을 주고 있던 노예 시바를 데리고 몰래 떠나버린다. 라울은 ‘준비된’ 자신이 아닌 사울이 여호와의에게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그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배움과 앎이 쓸모없는 것이었다고 여긴다. 얼마 후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웃는 듯, 우는 듯한 얼굴로 죽어있는 라울이 발견된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후 1세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오늘날과 비교하여 신(특히 여호와)을 더욱 가깝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으나 신의 말씀을 성경(구약)을 매개로 하여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으며, 신의 존재

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 장에서 다룬 문명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던 신화의 시대(구약)와 달리, 라울의 시대에 신, 또는 신의 화신이 지상으로 직접 내려왔다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그렇기에 스스로를 여호와의 독생자라 칭하는 예수는 의심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인공인 라울은 신을 직접적으로 대면(인식)하지 못한 채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의 근거를 ‘배움’과 ‘지식’으로 채워 넣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라울이 신의 존재를 가깝게, 혹은 명백하게 인식하는 부분은 두 차례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는 “경전과 철학을 읽는 생활 속에서” “신과 하나가 되고 누리와 하나가 되었다고 느껴지던 경지”³³⁾고, 다른 하나는 총독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사울이 회심하여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이다. 이 순간 라울은 “제가 온 힘과 배움을 쏟아서 믿지 못하던 나사렛 사람 예수의 신성을”³⁴⁾ 긍정하게 된다.

먼저 첫 번째 장면에서 언급되는 인신합일(人神合一)의 경지는 육체적 한계가 있는 인간이 신에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성을 통해 인간 정신이 최고치로 고양되었을 때 느끼는 ‘황홀경’이라 할 수 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인간인 오디세우스가 신화적 괴물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화의 서사에서 인간이 신의 우월성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성, 재치, 기술’이다. 즉, 인간의 이성은 신을 매개로 하지 않은 채 인간이 신에 가까워졌다는 감각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는 평생 자기를 믿고 살아왔었다. 경전과 철학을 읽는 생활 속에서

33) 최인훈, 「라울전」, 『웃음소리 최인훈 전집 8』, 문학과지성사, 2009, 81면.

34) 위의 글, 71면.

번번이 찾아들던 저 황홀경. 신과 하나가 되고 누리와 하나가 되었다고 느껴지던 경지. 적어도 그 누구보다도 신에게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기쁨이 그의 삶의 등뼈였다. 그러한 느낌이 자기 앎을 믿는 데서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였다.³⁵⁾(밑줄은 인용자)

여기서 언급되는 ‘황홀경’이란 경지는 최인훈의 문학 전반에서 여러 차례 묘사되는 감각이다. 「우상의 집」, 「광장」, 「가면고」, 「하늘의 다리」뿐만 아니라 「화두」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감각은 작품마다 조금씩 다른 맥락과 의미를 갖고 있지만, 초기작이라 할 수 있을 「라울진」과 「우상의 집」에서는 지성과 세계의 조화, 즉 대상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상의 집」(『자유문학』, 1960.2)에서 ‘나’는 ‘그’에게 느껴지는 “우람한 인간적 부피와 매력”³⁶⁾의 비밀이 ‘그’의 과거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의 과거를 듣게 된 ‘나’는 “비로소 그를 둘러싸고 있던 신비의 가리개가 벗겨지는 것을 느끼며, 안팎이 밝아지는 것”³⁷⁾을 느낀다.

베일을 쓰고 있던 비의(秘義)적 세계가 앎을 매개로 하여 스스로를 온전히 드러낸다고 느꼈을 때 「라울진」의 라울과 「우상의 집」의 ‘나’는 황홀경을 경험한다. 그러나 곧 그 황홀경은 일시적 착각, 혹은 쉽게 무너져버리는 사상누각이었음이 드러난다. 라울은 신의 선택에 배제됨으로써, ‘나’(「우상의 집」)는 ‘그’의 과거 이야기가 실은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은 좌절하게 된다. 최인훈이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주제화하고 있는 지성의 문제를 고려해본다면, 라울의 좌절은 신의 외면과 더불어 지성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장면이 인간 이성의 불확정성과 그로 인한 착각을 보여주는

35) 위의 글, 81면.

36) 최인훈, 「우상의 집」, 『웃음소리-최인훈 전집 8』, 문학과지성사, 2009, 90면.

37) 위의 글, 98면.

것이라면, 라울이 예수의 신성을 긍정하는 두 번째 장면은 인간 이성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바울이 돌아섰다는 말은, 지금껏 그가 망설이고 있던 마지막 장벽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라울은 제가 온 힘과 배움을 쏟아서 믿지 못하던 나사렛 사람 예수의 신성(神性)을, 바울이 돌아섰다는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긍정한 것이었다.

또 한 발 늦었구나!

지금 느낌은 이것이었다. 나사렛 예수가 신이나 아니냐는 어쩌면 나중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또 당했다!

가위바위보에서 엉거주춤 내민 손바닥 앞으로, 바울의 가위꼴 두 손가락이 덮칠 때 느끼던 무서움.

오기로 빼먹은 대목이 스승의 입에서 시험 과제로 주어졌을 때 느낀 그 절망감, 그것이었다. 삶에 늦은 자가 느끼는 슬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배가 선교를 떠난 순간 부두에 와 닿은 자, 그것도 번번이 그러는, 아니 평생 내리 햇물을 켜온 자의 마음이었다.³⁸⁾ (밑줄은 인용자)

작품에서 라울은 사울보다 먼저 예수가 진정 신의 화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물론 경전과 사료에 대한 계보학적 검토를 통해 얻은 결론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라울 자신이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으며 그가 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수를 만나러 떠났다면 라울은 예수의 신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라울의 패배를 ‘실천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앞서 논증한 것과 같이, ‘실천론’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38) 최인훈, 「라울전」, 『웃음소리 최인훈 전집 8』, 문학과지성사, 2009, 71면.

만나게 된 사울이 어떠한 방식의 실천을 보였어만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는 추상과 구체에 대한 최인훈의 인식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이성(이성)은 비록 구체적 사례로부터 시작되었을지언정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일시적) 진리의 영역을 구축한다. 2장에서 다른 ‘문명’과 같이 추상화된 지성은 구체적 현실과 멀어지게 되며 그것이 실제 삶, 개인의 실제적 인식에 적용될 때 혼란을 낳는다.

따라서 라울이 지식을 통해 예수가 신일 가능성을 인식한 것과 예수가 진정으로 신임을 긍정하는 것은 연속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가 부족했다고 말하는 ‘한 걸음’은 지성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한 걸음이라기보다 유한에서 무한으로 넘어가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넘어가는, 추상에서 구체로 넘어가는 전환의 ‘한 걸음’이다. 유한이 끝없이 이어진다고 해서 무한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라울이 배움과 지식을 한없이 확장하여도 결국 신에 닿지는 못한다.

이 점에서 라울이 예수의 신성을 진정으로 긍정하는 계기가 사울의 회심이라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지성을 통해서 결국 넘어서지 못한 ‘마지막 장벽’을 자신의 삶을 통해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신성을 긍정하는 순간 라울이 떠올린 사울과의 일화들은, 그것이 비록 절망감을 불러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가 직접 경험하고 지각한 사건들로, 라울 자신의 삶 속에 각인된 감각적 깨달음인 것이다.

위의 두 장면은 모두 직접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존재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하나는 지성을 통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삶을 통한 인식이다. 후자의 인식은 최종적으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전자의 인식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둘 모두 결과적으로 신을 실제로 대면하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라울이라는 인물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

아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은 인간을 초월한 어떤 위대한 존재로, 그것은 인간의 외부에 있다. 반면에 지성은 오롯이 그 인간 자신의 것이라 믿어진다. 라울이 자신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에 대한 믿음과 함께 지성에 대한 믿음에 있었던 것이다. 신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라울은 지성에 대한 믿음을 함께 잃었다. 오롯이 자신의 것이라 믿어왔던 지성이 타자가 되는 장면이야말로 「라울전」의 서사라 할 수 있다.

이는 최인훈 문학 전체로, 그리고 인류 역사와 근대 문명의 문제로 심화/확장될 필요가 있다. 인류의 역사, 특히 서양사는 이성을 통해 세계의 어둠을 걷어내고 신과 운명 따위의 초월적 존재를 배제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자연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이성은 자연과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게 만드는 특별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즉, ‘인간=이성’이라는 인식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각인되어왔는데, 이는 푸코의 광기에 대한 연구³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 내부에서도 이성을 갖추지 못한 존재는 인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각인된 인식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떤 위대한 천재도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다. 책상머리에 앉아 우주의 흐름을 한눈에 보았던 ‘공명의 시대’, 즉 지성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그 지성을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시대는 문명의 가속도적인 발전과 함께 더 이상은 재현될 수 없는 것이다. 「라울전」은 이러한 인식을 극적인 방식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성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 우리 시대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39) 미셸 푸코, 이규현 역, 『광기의 역사』, 나남, 2020 참고.

4. 결론

본고는 최인훈의 문학과 사유에서 드러나는 내적 모순의 근본적 원인을 세계와 개인에 대한 최인훈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인훈은 자신의 문학 활동 초기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룩한 문명의 크기와, 그에 비교하여 왜소한 개별 인간의 한계를 산문 속에서 드러내왔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최인훈의 개인사와 민족적 비극을 원인으로 들고 있고, 최인훈의 문학적 주제가 개인/민족에서 점차 세계 문명으로 심화/확대되어간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본고는 최인훈의 초기 사유와 문학 속에서 이성중심주의적 문명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가 반복적으로 주제화하고 있는 지성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개인과 민족을 넘어 인류의 문명과 개별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예각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인훈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류의 역사의 총합으로서 문명을 ‘세계’에 대응하는 존재로 내세운다. 즉, 최인훈에게 있어서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란 인간과 초월적 존재의 대립이 아닌 전체로서의 인간과 개별 인간의 대립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극히 근대적인 것으로, 근대 문명이 자연 전체를 지배함으로써 이전까지 자연이 누리고 있던 지위를 문명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인식을 ‘제2의 자연’으로, 그리고 근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현대의 신화’라 명명한다. 아도르노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인간 이성의 역사를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인훈의 여러 산문과 작품에서는 비대한 문명이 개별 인간을 초월하여 또 다른 ‘자연’이 되었으며, 그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서사가 신화적 서사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에 의해 쌓아올려진 문명은 개별 인간의 관점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써, ‘친숙하지만 낯선’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

인간 지성의 심화/확장과 함께 거대해지고 복잡해진 문명은 개별 인간

을 소외시키는 한편 인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전체주의적 사상을 낳았다. 아도르노와 같은 당대의 사상가들이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드러난 세계 규모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인간 이성에 대한 맹목적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성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모색했다면, 최인훈의 초기 소설들에서는 지성에 대한 믿음에 회의를 드러내는 주인공들을 주로 다룬다.

최인훈의 초기 단편소설인 「라울전」(『자유문학』, 1959.12)은 신에게 버림받은 인간이 자신이 믿고 있던 지성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이야기를 다룬다. 특히 「라울전」은 지금까지 신과의 관계, 혹은 실천하지 않은 인간형을 중심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본고의 관점에서 독해할 경우, 오롯이 자신의 것이라 믿어왔던 지성이 타자가 되는 순간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최인훈의 사유와 함께 읽으면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인간 문명과 이성 중심의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최인훈의 사유가 반지성주의를 지향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후에 최인훈은 한 인터뷰에서 “사람은 추상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행동. 추상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탐험,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존재”⁴⁰⁾라 말하며 바깥의 현실과 함께 머릿속에 있는 현실 역시 똑같은 현실이라 말한 바 있다. 추상과 구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라울전」에서 신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드러난다. 추상적 지성을 통한 인식과 구체적 삶을 통한 인식이다. 또한 1960년에 발표된 「가면고」(『자유문학』, 1960.7)에서 ‘높음의 도(지성)’와 ‘낮음의 도’가 빈틈없이 일치할 때 부처의 얼굴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최인훈은 배움과 지성을 반대한다기보다 그것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모색하던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40) 김수영, 「인터뷰 [삶의 지혜를 구하다⑤] 최인훈 “한 생애로 부족하다. 무한히 부활하겠다”, 『채널 예스』, 2012.3.22. <https://ch.yes24.com/Article/View/19404>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최인훈 전집 4』, 문학과지성사, 2009.
_____, 『웃음소리-최인훈 전집 8』, 문학과지성사, 2009.
_____, 『유토피아의 꿈-최인훈 전집11』, 문학과지성사, 2010.
_____, 『문학과 이데올로기-최인훈 전집12』, 문학과지성사, 2009.

2. 단행본

- 이태동 편, 『최인훈-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19』, 서강대학교출판부, 1999.
이동하, 『한국소설과 기독교』, 국학자료원, 2003.
최윤경, 『회색인의 자장가(내 아버지 최인훈과 함께 했던 날들』, 삼인, 2019.
『성경전서 새번역』, 대한성서공회, 2004.
게오르그 루카치,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미셸 푸코, 이규현 역, 『광기의 역사』, 나남, 2020.
테오도어 아도르노,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2001.

3. 논문

- 김현, 「해겔주의자의 고백」, 이태동 편, 『최인훈-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19』, 서강대학교출판부, 1999.
방민호, 「데카주의의 논리-최인훈 장편소설 『회색인』」, 『어문논총』 6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161-190면.
신익호, 「신학적 신정론의 관점에서 본 문학-〈라울전〉과 〈고양이는 부르지 않을 때 온다〉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국어문화회, 2012, 215-237면.
신제원, 「최인훈의 에세이에 나타난 문명론과 문학예술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우찬제, 「현실의 유형인-인식의 세계인, 그 가역반응」, 이태동 편, 『최인훈-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19』, 서강대학교출판부, 1999.
이동하, 「『목공요셉』과 『라울전』에 대하여」, 『한국소설과 기독교』, 국학자료원, 2003.
이선영, 「최인훈 문학의 아이러니와 현대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이수형, 「신과 대면한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라울전』과 『아겔다마』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225-246면.

- 전소영, 「「라울전」, 최인훈 문학의 한 기원」,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2018, 285-312면.
- 정영훈,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주체성과 글쓰기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조경덕, 「운명과 자유-최인훈의 「라울전」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367-394면.
- 최은혁,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의식의 양가성과 그 표출 양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Theodor Adorno, *Die Idee der Naturgeschichte*, In Philosophische Frühschriften, Gesammelte Schriften 1,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73.
- Theodor Adorno, Hullo-Kentor, *THE IDEA OF NATURAL HISTORY*, Telos: Critical Theory of the Contemporary 60, pp.111-124.

4. 기타

- 김주용, 「번역연습: 「자연사의 이념」 - 1」,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wndyd75/221857387052>.
- 김수영, 「인터뷰 [삶의 지혜를 구하다⑤] 최인훈 “한 생애로 부족하다. 무한히 부활하겠다”」, 『채널 예스』, 2012.3.22. <https://ch.yes24.com/Article/View/19404>

<Abstract>

The Modern Myth and Thought of the Grey Man
– Focused on Choi In-hoon's Short Story *Raul Story*

Kim, Chun-kyu

This paper reveals that Choi In-hoon's critical perception of human civilization has been revealed since the beginning of his literary activities, targeting his 1960s prose and *Raul Story*. Existing studies have interpreted that the cause of this internal contradiction was mainly related to Choi In-hoon's personal history and national tragedy. However, this study noted that criticism of Logos-centered civilization was revealed in Choi In-hoon's early works.

Under the perception that human alienation caused by civilization fundamentally stems from blind belief in human reason, he seeks to reflect on reason, seeks alternatives, and shapes it into novels to overcome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paper, it can be seen that *Raul Story* dramatically reveals the moment when the intellect, which had been believed to be his own, is converted to others. Reading this with Choi In-hoon's thoughts, it will be confirmed that it contains criticism of human civilization and logos-centered history, not just an individual tragedy.

Key words: Choi In-hoon, the second nature, modern myth, the gray man, *Raul Story*, criticism of civilization, logocentrism

투 고 일 : 2022년 5월 12일

심 사 일 : 2022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2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22년 6월 20일